

시설퇴소청년의

희망 복원을 위한 자립 여건 진단



우리사회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청년 이 있습니다.

청년의 희망을 복원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 취약청년의 자립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하여 홀로서기 하고 있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여건을 분석한 결과,
삶의 주요 영역에서 취약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설문조사

조사대상 시설퇴소청년(만19세~34세)
2,457명(표본조사)

조사방법 웹기반 자기기입방식

조사기간 2022년 6월~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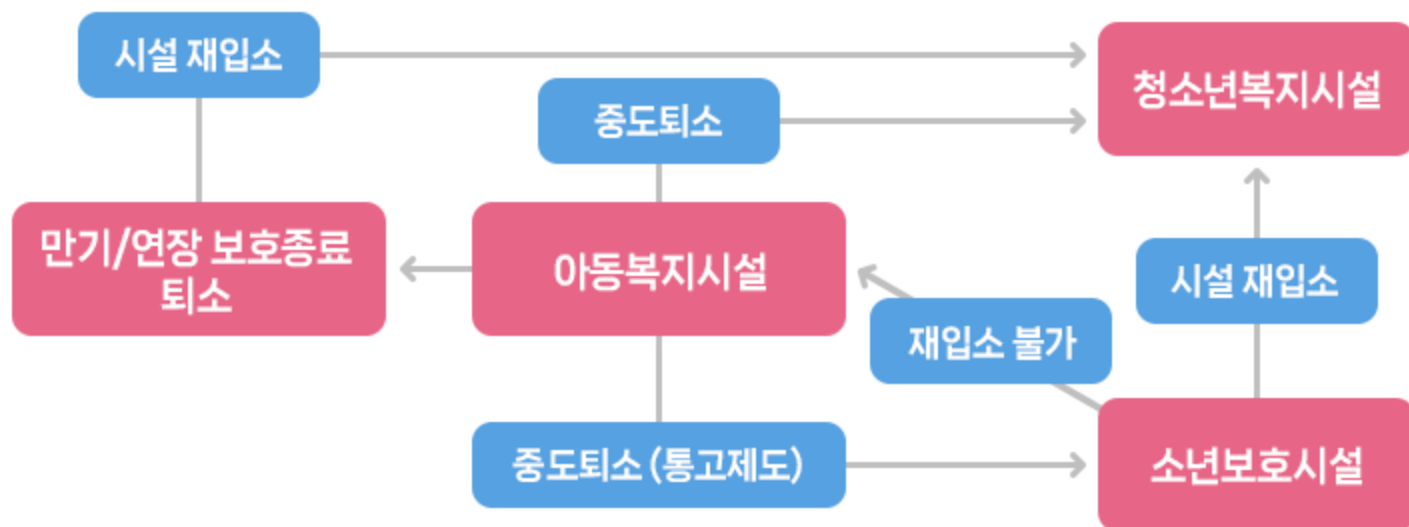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은...

- ①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아동그룹홈)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여,
-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 ③ 「소년법」 상 보호시설(소년원)을 퇴소한 후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의 사후관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청년을 의미한다.

다양한 시설과 부적절한 주거 경험

아동·청소년기에 여러 유형의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숙박시설 등 주거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보호 중 '**통고제도**'를 통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퇴소 후 아동복지시설의 재입소가 어려워 '자립준비청년'에서 제외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 **통고제도** : 보호자,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후 8~10호 보호처분이 부과되면 소년원에 입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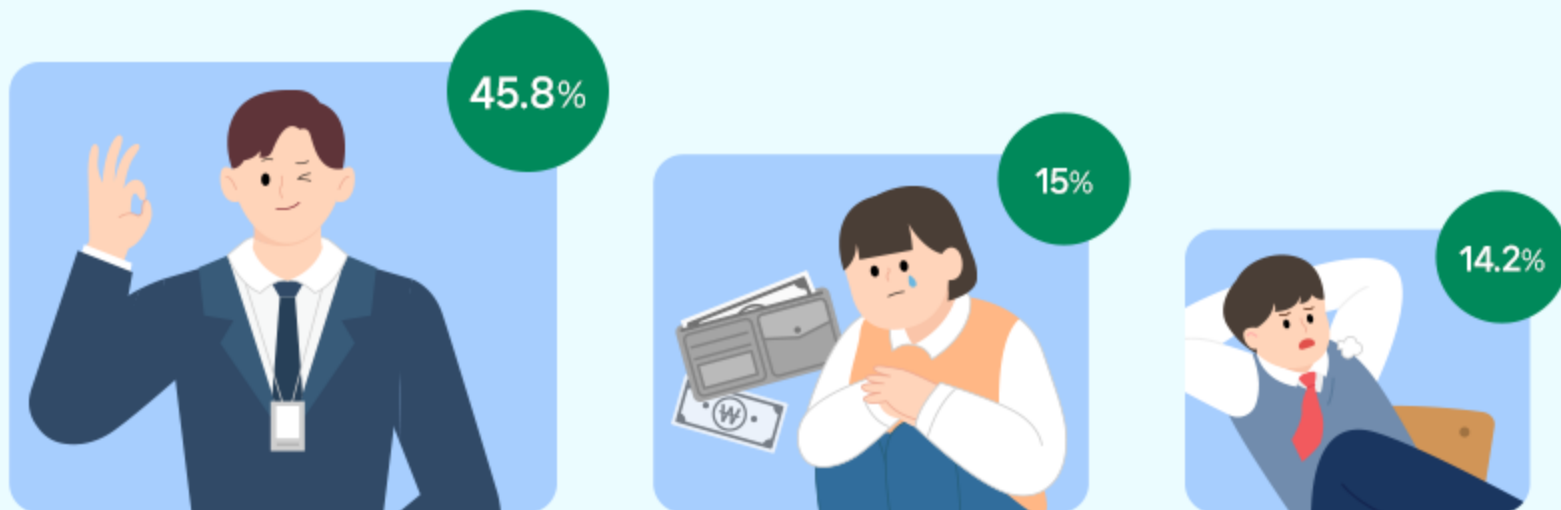
낮은 대학 진학률

동년배 일반청년의 경우 10명 중 7명 이상(75.8%)이 대학에 진학하는 데 반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1.2%***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표본에서 대학 진학률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 69.3%,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38.1%,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 25.8%로 편차가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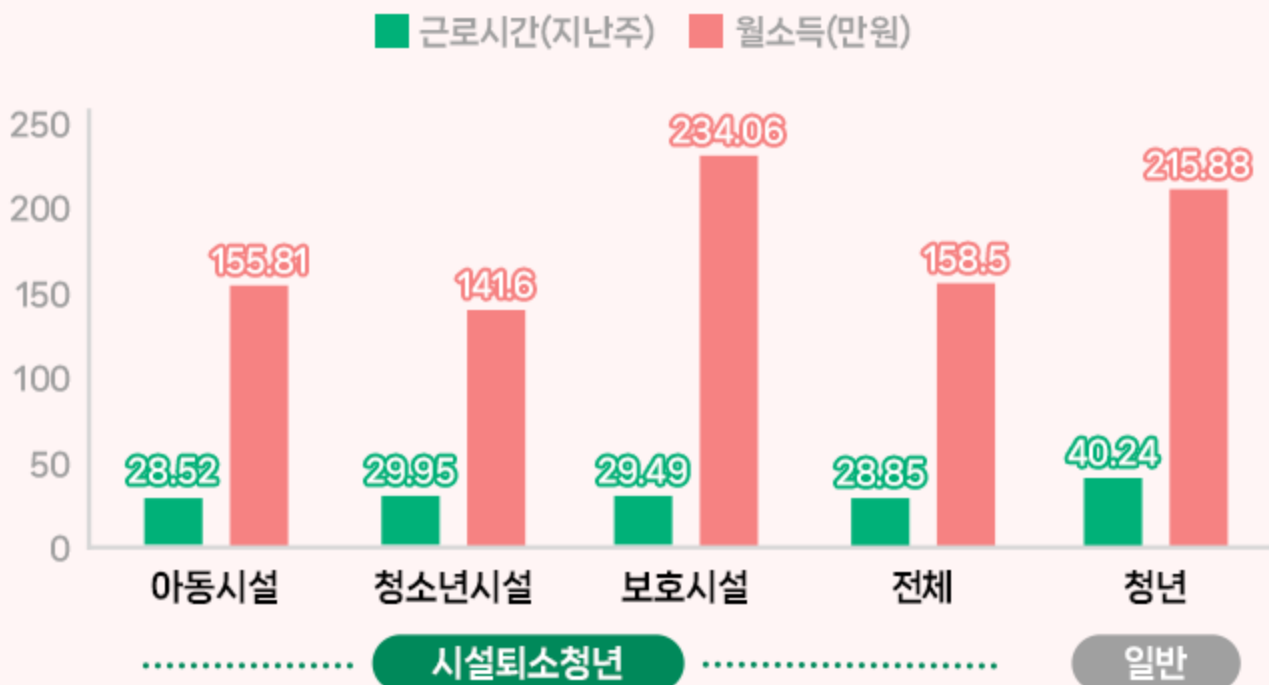
* 일반청년 응답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김기현, 배정희, 2021)에 참여한 청년 중 30세 이하만의 응답을 재분석한 결과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대학에 가지 않는 주된 이유는 **'빨리 취업해 돈을 벌기 위해서'**가 **45.8%**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어려움(15%)'과 '공부에 대한 흥미 부족(14.2%)'이 뒤를 이었습니다.



두 개 이상 일자리에 단시간 종사

조사 표본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67.1%**로, 이들의 평균 근로 시간은 **28.85시간**,
월 평균 근로소득은 **158.5만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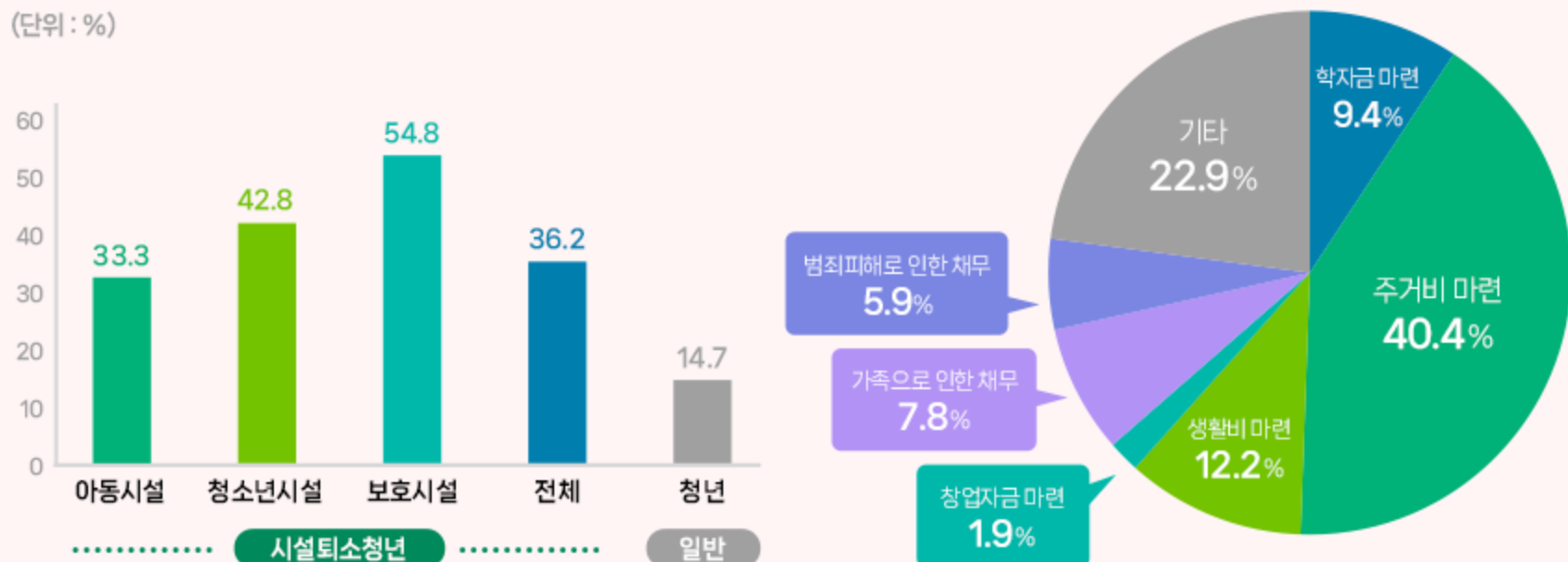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중

'지난 일주일 동안 두 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한 경우'*는 **15.3%**,
플랫폼 노동 경험은 **12%**로 **여러 개 일자리에 단시간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일반청년은 두 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한 비율이 1.3%, 플랫폼 노동 경험은 3.8%임.

빛, 금융취약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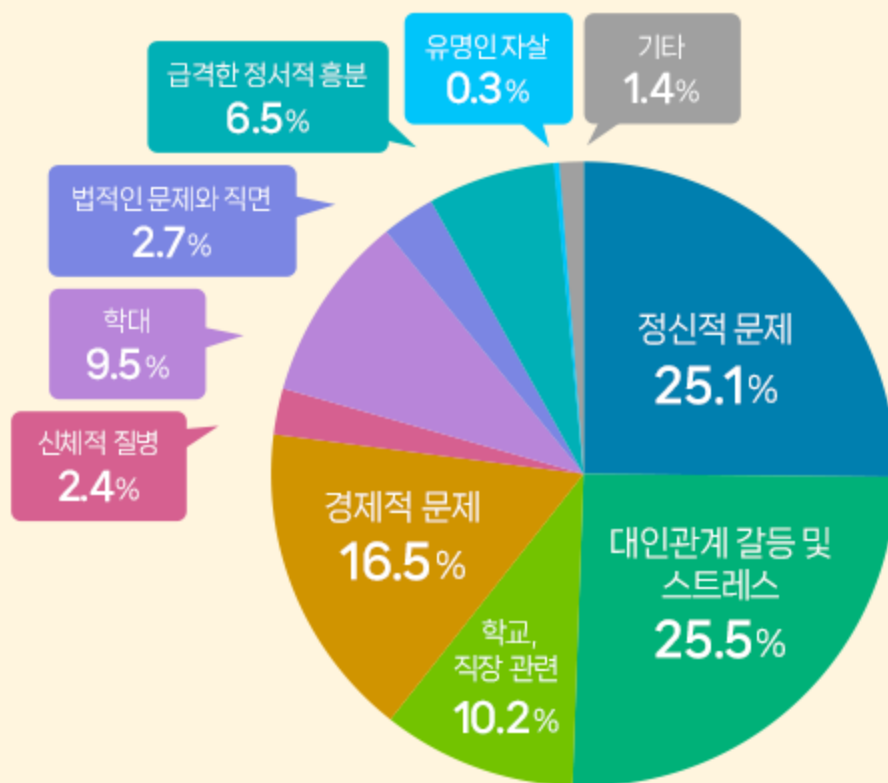
조사 표본에서 채무가 있는 경우는 **36.2%**로
 동년배 일반청년(14.7%)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부채 평균은 **약 1,200만원**,
 부채 사유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주거비**였습니다.



이 외 사유는 기타, 생활비, 학자금, 가족으로 인한 채무,
 범죄피해로 인한 채무, 창업자금 마련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정적 생애사건 경험, 높은 자살 시도율

조사 표본에서 아동·청소년기에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비율*이 동년배 일반청년에 비해 높았고, **10명 중 4명(43.3%)**은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경험이 있으며 실제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21.8%**에 달했습니다.



자살 생각의 주된 이유(중복응답)는 대인관계 갈등 및 스트레스, 정신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모(보호자)의 폭력/방임 등 6개 항목을 비교하였고 성폭력 피해(12.6%), (모르는 사람으로부터)배산·사기피해(14.9%)는 본 조사 표본에서만 확인함.

사회적 고립

조사 표본에서 '고립·은둔' 상태인 비율(3.6%)도
일반청년(0.3%)보다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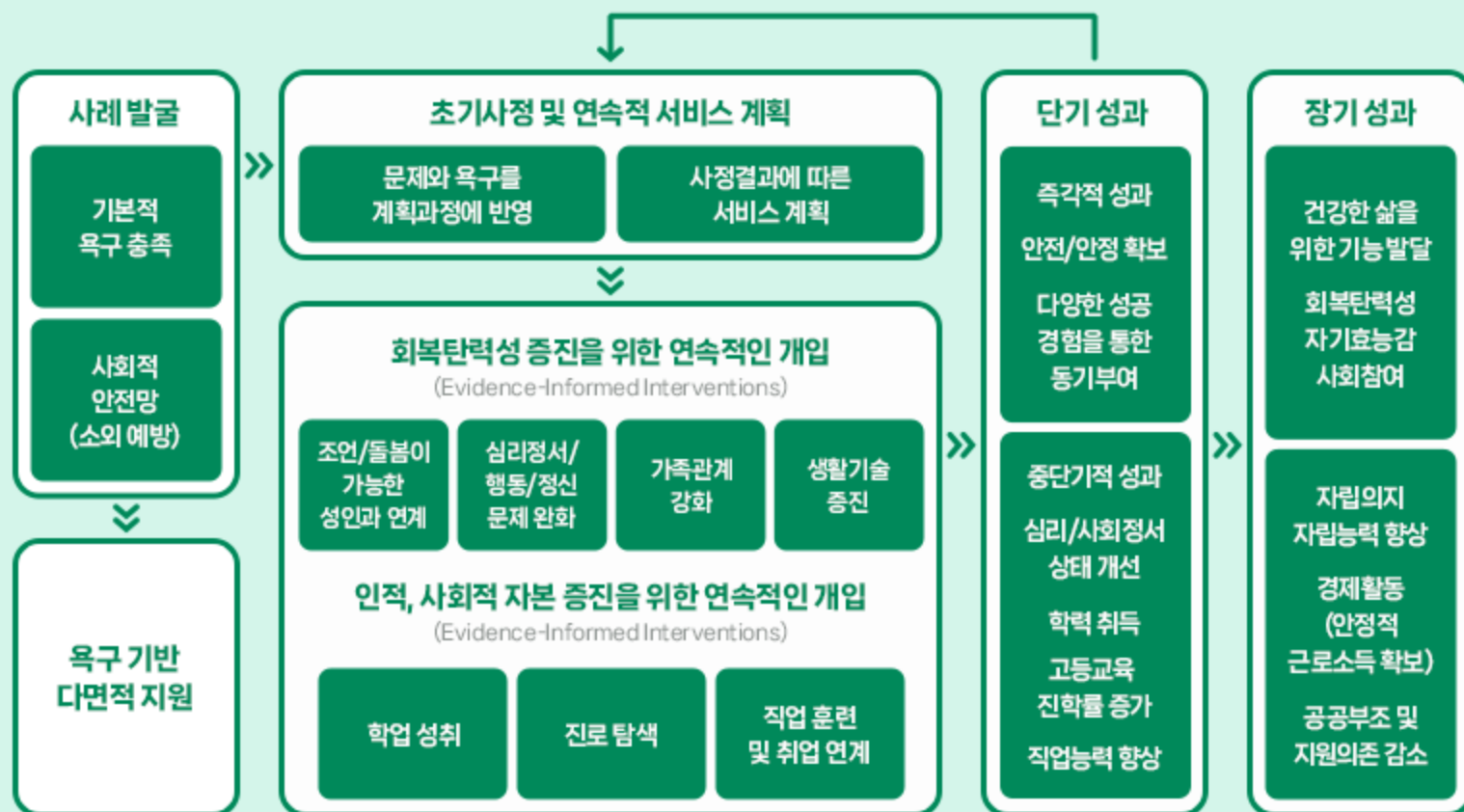
아동 시설	청소년 시설	보호 시설	전체	일반청년
3.2%	5.2%	4.8%	3.6%	0.3%

* 사회적 고립 :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의 응답률을 합산함.



시설퇴소청년, 미래 희망 복원하기

시설퇴소청년이 직면한 복합위기를 해소하고,
낙인과 차별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확대하고,
자립의 주체로서 의지와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모든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 놓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종합연구 I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